

“제목도, 객석도 없는 공연... 디지털 디톡스는 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행위〉



가수 루시드폴
안테나 제공

“저희가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주고 싶어요. 이 공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루시드폴은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모로 독특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공연에는 우선 제목이나 기승전결이 없다. 루시드폴과 함께 출연하는 정가(正歌·전통 성악의 한 갈래) 보컬리스트 정마리, 설치미술 작가 부지현은 각자 선보이고 싶은 퍼포먼스를 3시간 동안 자유롭게 펼쳐놓는다.

일반적인 형태의 객석도 없다. 관객은 공연장 내부 원하는 곳에 자리 잡은 뒤 편안한 자세로 공연을 관람하고, 출연자는 관객 사이를 지나다니며 무대를 진행하기도 한다.

루시드폴은 7월 4~6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전시도 공연도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세 사람이 각자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을 겹쳐놓고 보면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무대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는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프로그램의 개막작이다.

공연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서로에게 구애받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루시드폴은 앰비언트 뮤직(자연·악기 소리로 사색적 분위기를

가수 루시드폴, 7월 4~6일 공연

전자음악·정가·설치미술 앙상블 앰비언트 뮤직·레이저 퍼포먼스 ‘멍때리며’ 느린 변화 감상했으면 ‘공연장 고유한 소리·빛 경험하길’

위기를 만드는 전자음악)을, 정마리는 정가를 들려주고, 부지현은 레이저를 쏘는 설치미술 작품을 조작하며 저마다 주어진 시간을 꾸려나간다.

출연진은 각기 원하는 시간만큼 공연을 선보이다 퇴장하고, 다시 무대에 오르기를 반복한다. 루시드폴은 그 과정에서 우연히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는 때도 있고, 세 사람 모두 무대에서 퇴장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드폴은 땅속에서 채집한 소리를 소재로 창작한 앰비언트 뮤직을 들려줄 계획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누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소개했다.

루시드폴은 세 사람 모두 이런 방식의 공연은 시도해 본 적 없지만, 무대가 만들어낼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부 작가의 경우 전시회에서 작품을 오래 관람할 여유가 없는 관객들이 오롯이

작품을 느끼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시드폴은 “부 작가가 관객들이 ‘멍을 때리며’ 느리게 일어나는 변화를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음껏 하라고 말씀드렸다”며 “공연장의 고유한 소리와 빛이 참 좋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들이 다양한 시·청각적 자극을 편안한 상태에서 감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문화회관도 휴대전화에 촬영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객의 풍부한 공연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7월 초 공연장의 서늘한 공기,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섞여서 독특한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3시간을 견뎌내신다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디톡스’도 되지 않을까요? 하하.”

1998년 밴드 ‘미선이’로 가요계에 데뷔한 루시드폴은 2001년부터 솔로로 활동하며 서정적인 노래로 사랑받았다. 제주도에 정착한 뒤에는 유기농법으로 굴밭을 가꾸며 농부로서의 삶도 일구는 중이다.

여기에 ‘싱크 넥스트’ 출연과 하반기 신보 발매 준비까지 겹치면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1월 발매 예정인 신보는 2022년 ‘목소리외기타’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노래 음반이다.

“올해는 가사에 집중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모습과, 자유롭게 소리를 녹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공연과 음반에 공존하는 한 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빅히트뮤직 제공

제이홉, 오사카돔 8만명 동원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솔로 월드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HOPE ON THE STAGE)를 열어 양일간 8만 관객을 만났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일 밝혔다.

이번 오사카 공연은 지난 2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시작해 북미와 아시아 등 15개 지역에서 31회에 걸쳐 열린 월드투어의 마지막 해외 일정이었다. 제이홉은 투어를 통해 약 4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오사카 공연은 일찌감치 전석이 매진됐고, 전 세계 70개국 영화관에서 생중계됐다.

제이홉은 ‘왓 이프...’(What If...), ‘판도라스 박스’(Pandora’s Box), ‘스위트 드림스’(SWEET DREAMS), ‘모나리자’(MONA LISA) 등 다양한 솔로곡을 들려줬다. ‘마이크 드롭’(MIC Drop) 일본어 버전, ‘햅새’ 일본어 버전, ‘병’ 등 방탄소년단 히트곡 메들리도 선보여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제이홉은 “이번 투어는 저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자 꿈이었다. 아름다운 기억이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븐틴 5집 첫 주 252만장 판매

그들 세븐틴의 정규 5집 ‘해피 버스트데이’(HAPPY BURSTDAY)가 한터차트 기준 발매 첫 일주일간 252만1,208장이 판매됐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지난 26일 발매된 이 앨범은 이로써 올해 나온 K팝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첫 주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피 버스트데이’는 발매 당일 더블 밀리언 셀러(200만장)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썬더’(THUNDER)도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톱 100’ 차트 1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이날 나영석 PD가 연출한 새 예능 프로그램 ‘나나민박 워드(with) 세븐틴’을 공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면 사정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00 오늘N(재)	5:00 투데이(재)	5:50 한국기행(재)
5:10 내고향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6:00 2025 국민의 선택	6:10 세계테마기행(재)
6:00 특집 KBS 뉴스광장	7:00 TV 유치원	6:25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특집 모닝와이드 1부	7:15 모두 함께 부스누!
7:50 인간극장	7:30 생생정보 스페셜	7:50 생방송 오늘 아침	6:25 2025 국민의 선택	8:00 딩동덩 딩동덩
8:25 아침마당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50 친절한 선주씨(재)	특집 모닝와이드 2부	8:50 하프와 친구들
9:30 KBS 뉴스특보	9:30 여왕의 집(재)	9:30 특집 930 MBC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9:20 자이언트 팽TV(재)
10: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10 인간극장 스페셜	10:0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8:4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0:10 대운을 잡아라 스페셜	10:50 가네정 오네정 이민정(재)	11:55 특집 12 MBC 뉴스	9:55 2025 국민의 선택	11:20 세계테마기행
			특집 SBS 10 뉴스	
			10:30 틈만 나면(재)	12:00 EBS 뉴스 12
12:00 특집 KBS 뉴스 12	12:1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2:25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4 스페셜		12:10 귀하신 몸(재)
1:00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1:25 개그 콘서트 스페셜			1:00 EBS 평생학교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40 24시 헬스클럽(재)	1:55 특집 2시 뉴스 외전	12:00 2025 국민의 선택	2:30 클래스 e
2:00 KBS 뉴스특보	3:55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재)	4:50 선택 2025 1부	특집 SBS 12뉴스	3:55 불륜스
2:20 팔도밥상(재)	5:15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재)	제 21대 대선 개표방송	12:50 TV 동물농장(재)	4:10 딩동덩 딩동덩
3:00 특집 사사건건			2:00 2025 국민의 선택	5:00 페퍼 피그
4:50 제21대 대선 개표방송			특집 뉴스브리핑	5: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내 삶을 바꾸는 선택 1부	6:35 2TV 생생정보	6:40 선택 2025 2부	4:00 2025 국민의 선택	
	7:50 여왕의 집	제 21대 대선 개표방송	특집 SBS 뉴스	6:10 EBS 뉴스
	8:30 셉템브라의 비밀 스페셜	6:50 선택 2025 3부	4:50 2025 국민의 선택 1부	6: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7:00 제21대 대선 개표방송	9:45 스모킹 건	특집 MBC 뉴스데스크		7:20 고향민국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부	10:45 아이 러브 스포츠	10:10 선택 2025 4부		8:40 세계테마기행
	11:10 24시 헬스클럽(재)	제 21대 대선 개표방송	7:00 2025 국민의 선택	9:35 한국기행
9:00 특집 KBS 뉴스 9		11:30 선택 2025 5부	특집 SBS 8뉴스 2부	9:55 건축탐구-집
10:00 제21대 대선 개표방송		제 21대 대선 개표방송	8:50 2025 국민의 선택 3부	10:45 EBS 자연 다큐 걸작선
-내 삶을 바꾸는 선택 3부			11:00 2025 국민의 선택 4부	11:40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오늘의 운세

<p>子 48년생 뿌린 만큼 소득의 하루 60년생 마무리에 책임감 가지고 최선으로 72년생 목은 근심 완전하게 사라지고 84년생 인맥이 중요한 재산</p>	<p>卯 51년생 잔걱정은 사라지고 63년생 말조심만 하면 만사형통 75년생 잘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으니 조심 87년생 마음 가는 쪽으로</p>	<p>午 42년생 목적을 분명하게 54년생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으니 실망 66년생 끊고 맺음이 확실해야 78년생 모진 소리도 때로는 약</p>	<p>酉 45년생 웃을 일이 많은 하루 57년생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그만 69년 표현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81년생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p>
<p>丑 49년생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 61년생 무엇이든 경험이 제일 중요 73년생 비밀은 끝까지 지키도록 85년생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은 날</p>	<p>辰 52년생 내주장 밀고 나가면 손해 64년생 의논하면 빠른 결과가 76년생 마음 가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정답 88년생 미루던 일 마무리</p>	<p>未 43년생 사소한 일은 넘기도록 55년생 실속도 없고 피곤도 하고 67년생 후식은 재충전 79년생 익숙한 상황이라도 고민은 고민</p>	<p>戌 46년생 내 의견은 잠시 뒤로 58년생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 관리 70년생 내 행복은 내가 하기 나름 82년생 생각만 하지 말고 부딪쳐보는 것도</p>
<p>寅 50년생 새로운 인연보다 옛 인연 유지 62년생 도둑이 제발 저러도 넘어가지 않도록 모르는 척 74년생 구관이 명관 86년생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p>	<p>巳 41년생 수확의 기쁨이 53년생 선택한 길이 옳은 결과로 기쁨이 65년생 하지 않아도 해도 똑같이 좋은 결과 77년생 나서지 말고 내 일만</p>	<p>申 44년생 내 마음 같등 주의 56년생 하기 싫은 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하자 68년생 내가 해야 옳은 결과로 80년생 현실에 충실하도록</p>	<p>亥 47년생 자식의 말도 가끔은 들어주며 59년생 하나 내어주고 둘을 받는다 71년생 시작부터 마무리는 똑같이야 83년생 양손에 떡을 쥐고 고민</p>